



이란 전쟁 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UAE의 오펙 탈퇴 3면	삼성전자 노동자 파업 논란 4~6면	미국 반트럼프 파업·시위 7면	쿠팡 논란과 한미 관계 8면	6·3 지방선거 9면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일·필리핀 '킬웹' 구상 10면
----------	----------------------------	---------------------	------------------	-----------------	-------------	-------------------------------



팔레스타인 11, 12면

삼성전자 노동자 요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부·사용자·언론은

이간질 중단하라

관련 기사 4~6면



사진 제공 삼성정전노동조합

이란에서 역사적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후세인 사이드 연대체 '인종차별에 맞서자'
카디프 지역 의장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은 미국 제국주의를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뜨렸다.

이번 위기는 미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베트남에서 겪은 위기보다 더 크다. 심지어 1956년 영국 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수에즈 운하 위기보다도 더 심각하다.

그런데 수에즈 운하 위기와 달리 이번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위기에는 1956년 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군사적 충돌, 경제적 충격, 지정학적 사분오열이 결합돼 있다.

이제 관건은 미국이 그저 이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질서를 세울 수 있느냐다.

그리고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위기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핵심적으로 이번 위기는 단지 양국 간 충돌로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갈수록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이스라엘도 얽혀 있다. 이스라엘은 한껏 자신감이 올라 있지만 동시에 취약하기도 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걸프 연안 강국들은 미국의 편에서 있지만 그들의 협조는 지난 수십 년 이래 가장 이해타산적이다.

게다가 이번 전쟁의 결과로 이란 정권이 억지되기는커녕 역내 행위자로서 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그저 역내 갈등에 대처하는 협상 수단의 하나가 아니라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무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질서를 보존하고자 하는 유럽 동맹국들과 소원해지고 있다.

질질 끄는 전쟁이 하나 더 시작되는 것에 대해 대중적 반감이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매우 커졌다.

이러한 권력층 내부의 응집력 약화와 대중적 지지 하락은 군사력을 정치적 질서로 전환하는 미국의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

향방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지 대이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미국 헤게



미국의 중동 패권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모니 구조 전체의 지속가능성이다.

이런 더 광범한 균열은 모든 걸프 연안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군 기지를 들이는 대가로 '안보'를 보장받는다. 합의가 확연하게 빠져거리고 있다.

확전에 빨려들어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 정권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과 이란의 직접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블록 안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카타르발 공격이 멈추고 이란도 공격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카타르와 이란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이것은 외교적 조율 이상의 합의가 있다. 이번에 걸프 연안국들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 순위에서 자신들이 이스라엘보다 하위임을 새삼 확인했다.

이 정권들에게 현 위기는 국내로도 나타나고 있다. 오랫동안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던 정권들조차 빠져대는 조짐을 보인다.

지난달 바레인에서는 바레인을 통치하는 알할리파 가문이 대피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긴장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 준다.

여기에는 외부 압력과, 바레인에서 시아파 무슬림이 다수라는 요인(이란도 시아파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도 분명 작용했다.

그러나 이는 바레인 내의 모순이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바레

인에서는 2011년 '아랍의 봄' 때 일어난 항쟁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대에 의해 분쇄됐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위기가 중동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경쟁하는 열강이 이 위기의 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는 유가 상승으로 이득을 얻는 동시에 이란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분쟁을 실험장으로 활용하는 듯하다. 중국은 이란에 부품을 공급하고 미국의 무기 시스템, 전술,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저 지역 수준의 전쟁이 아니다. 미국의 지배가 더는 당연시되지 않는 세계에 관한 모의 실험이다.

진퇴양난

트럼프가 현 위기에서 쉽게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그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진퇴양난인 처지다.

이란은 장기화되는 위기에서 득을 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란이 더 강력해지는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역학이 가리키는 방향은 갈등의 격화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서 드러났듯이 말이다.

이제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지 특정 전쟁에서 이기느냐가 아니라, 체계적 통제를 유지하느냐다.

중동 전역에서, 오랫동안 탄압으로 유지되던 사회들에서 계급 간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과정은 질서정연하거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동이 옛 질서들의 해체라는 유동적 상태로 향하고 있음은 분명히 보여 준다.

중동 바깥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의 함의는 명백하다. 이 전쟁은 지독하게 원성을 사는 전쟁이고 노동계급에게 생활수준 악화를 강요하고 노동계급을 더한층 압박할 것이다.

전쟁 반대는 전쟁을 규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위기의 대가를 떠안는 것을 거부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혁명은 질서정연하게 시작되지 않고, 그 시점을 예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시기에는 기회가 열린다. 그 기회는 불균등성, 불확실성, 격렬한 논쟁을 수반할 것이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은 미국 주도 패권 구조의 위기이고, 현실 가능성이 큰 미국의 중동 패권의 종말을 시사하고 있다.

혁명가들의 과제는 벌어질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와 국제 질서의 균열

이란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이 전쟁이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임은 이미 분명하다.

중진국인 이란이 두 군사 대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워서 교착 상태를 이끌어 냈다. 경제적·군사적 세력 균형 변화와 그에 따른 미국 제국주의의 쇠락을 이보다 뚜렷하게 드러내는 징후는 없을 것이다.

이제 그 지정학적 파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OPEC) 탈퇴를 발표한 것이다.

오펙을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양대 걸프 연안국이다. 다른 걸프 연안국들과 마찬가지로 두 국가도 화석 연료로 막대한 부를 쌓고 전통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사이에서는 적대가 커져 왔다. 걸프 연안이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아랍에미리트는 운송·관광·금융 허브로 거듭났다. 그 결과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다변화된 경제를 갖게 됐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석유에 크게 의존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은 석유 의존을 줄이고자 했다. 그러나 필요한 투자를 조달하려면 유가를 비교적 높게(배럴당 약 80달러) 유지해야 했다. 그러려면 오펙의 석유 생산을 제한해야 했다.

오펙을 탈퇴한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원하는 대로 석유를 증산할 것이다.

**미국이 실패하자
아랍 세계의
하위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을 대신해
기밀 곳을 찾고 있다**



트럼프와 UAE 지도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한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다국적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계약을 따내려면 중동 지사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전해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극도로 기업 친화적인 아랍에미리트 도시 두바이의 지위를 위협한다.

그러나 갈등은 경제적일 뿐 아니라 지정학적이기도 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하위 제국주의들이다.

두 국가는 인접국인 예멘과 수단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참혹한 전쟁에서 서로 다른 편을 지원했다. 지난해 말 사우디아라비아는 접경국인 예멘에서 아랍에미리트가 군대를 철수하게 했다.

이란 전쟁은 두 국가의 갈등을 크게 증폭시켰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모든 걸프 연안국을 타격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는 2,800기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맞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공격을 받았다.

아랍에미리트가 그만큼 미국·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는 2020년 이스라엘과 수

교를 맺는 아브라함(이브라힘) 협정을 체결한 네 무슬림 국가 중 하나였다.

이후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의 공조를 강화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폭격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를 지키기 위해 서둘러 무기 체제와 운용 인력을 보냈다. 한 소식통은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 항공기가 이란 폭격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하위 제국주의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야심은 무슬림 세계의 지도적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자 인종 학살이 자행되는 동안 빈살만은 이스라엘과 수교할 수 없었다.

중동 전체를 전쟁에 휩싸이게 하려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시도에 대응해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과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핵무기 보유국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을 억제하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로 활동했고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다

파키스탄은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평화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레바논 휴전에 힘을 실어 주고 있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갈수록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는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다. 아랍에미리트는 파키스탄이 평화 중재자 구실을 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파키스탄에 부채 35억 달러를 즉각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즉시 이를 매워 줬다.

트럼프 정부의 비교적 일관된 목표 하나는 세계 석유·가스 생산에서 미국의 직접·간접 통제 비중을 늘리고, 산유량을 늘려 유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증산 계획은 트럼프 정부에 호못한 일일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아랍 세계의 하위 파트너 국가들을 지키는 데 실패하자, 그 국가들은 다른 기밀 곳을 찾고 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오랜 동맹국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오펙 플러스(오펙에 산유국 10곳을 더한 기구)에서 러시아와 공조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의 역내 경쟁자인 인도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을 확고하게 지지했다. 아직 뚜렷한 블록이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국제 시스템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

출처 Alex Callinicos, 'Cracks in the system widen after UAE's Opec exit' (2026. 5. 4) / 번역 이원웅

이재명 대통령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 주식·코인이 노동보다 사회에 더 유익한가

장호중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상대적 고임금층인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수억 원 대의 성과급을 요구한 것에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다소 거리감을 느끼는 점을 이용해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비난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왜 “나만 살자”는 태도인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말로 “과도”한가?

삼성전자 노조의 핵심 요구는 삼성전자 내 생산 부문별 영업이익의 15퍼센트를 해당 부문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올해는 반도체(DS) 부문의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큰데, 이 부문 노동자 수는 약 8만 명이다(전체 임직원 13만 명).

이를 두고 보수 언론은 하나 같이 노조가 45조 원(올해 예상 영업이익 300조 원의 15퍼센트)이나 요구하고 있고, 노동자 1인당 6억 원이나 챙겨간다고 펄쩍 뛴다.

그런데 이토록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기업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는 구성원에게 15퍼센트 이익이 배분되는 것이 “과도”한 것일까?

언론은 노조 요구가 기업의 미래를 위해 재투자할 돈을 성과급 파티로 일



자본이나 기계, 지식 자체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말은 참이 아니다

시에 다 날려 버리는 듯 떠들지만, 삼성전자 경영진의 2026년 투자 목표치 110조 원이므로, 노조 성과급 배분이 재투자를 막는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가 적자로 2년이나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때에도 주주배당을 실시할 때 이 언론들이 주주들의 탐욕, 배당 잔치 운운하며 비난한 적은 없다.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이미 성과급 잔치를 벌여 왔다. 2025년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이원진은 상여로 37억 5,800만 원, DS 부문 부회장 전영현은 36억 원, DX(가전, 휴대폰 등) 부문장 대표 노태문도 급여와 상여를 합쳐 61억 원을 받았다. 이 세 명이 삼성전자 노동자 수십 명분의 임금과 수백 명분의 상여를 챙겨도 비난은 없다.

또한 이재용은 자신이 보유한 삼성

전자 주식으로 배당만 수천억 원을 챙겨 간다.

이런 이익 배분은 탐욕이 아니고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의 시대에 받을 수 있을 때 얼마라도 더 받으려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과도한 탐욕이라는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부익부 빈익빈’을 왜 비판했는가?

성과급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맞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행동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위선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이 누가 있는가? 상인들이 흥정할 때도, 사용자 측이 고용계약서를 쓸 때도, 원청과 하청이 계약을 맺을 때도 모두 그렇다.

더구나 노동자들이 기업 이윤을 두고 사용자와 협상하거나 쟁의를 벌이는 것은 자본주의 법으로도 보장된 권리다.

근본적으로 카를 마르크스가 분석하길, 애초 이윤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를 전부 지불하지 않은 결과다. 마르크스는 이를 착취라고 불렀다. 노동자가 착취받은 이윤 중 자기 몫을 늘리려는 것을 두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 운운하며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진)도 천박한 위선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자기 몫을 포기한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그 몫을 하청업체와 사내 비정규직에게 줄 리 만무하다.

과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노동자들이 차등 성과상여금 배분에 반대하며 성과급을 모아 동등하게 나누는 것을 정부는 처벌했다.

협력·하청 기업 노동자와 삼성전자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역대 최대 수익을 이용해 임금을 인상하려면 그들도 똑같이 사용자에게 맞서 싸워야 한다.

SK하이닉스의 상대적 고액 성과급 지급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했는데, 삼성전자 임금 투쟁이 본격화하자, 이번엔 SK하이닉스 하청 노동자들도 성과 배분을 요구하며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그리고 삼성전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삼성전자 투쟁이 이기는 것이 도움이 될까? 주저앉는 게 도움이 될까?

이처럼 삼성전자 투쟁은 하청 업체 노동자들에게 방해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사실상 ‘주식해서 부자 돼라’고 기대감을 부풀려 왔다. 그러나 ‘노동’으로 부자 되라고는 하지 않는다(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산재



삼성전자 주주총회. 노동자들이 성과급을 양보하면 누가 이익을 보나?

사용자 편드는 정부, 노동자들에게 연대는 사활적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튿날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의 말이 구설에 올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그것이 영업이의 30퍼센트를 요구한 LG유플러스 노조를 향한 발언이라고 답했다.

그 전날 삼성전자 노조는 산업부 장관의 비난은 정면 반박했지만, 같은 논리를 대통령이 하자 정면 반박을 못하고,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이다.

이런 회피에 LG유플러스 노조가 항의했다. 친사용자 언론은 ‘이 간질’ 책략이 통했다며 내심 기뻐하고 ‘노노갈등’을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다음 날 공식적으로 LG유플러스 노조 측에 사과했다.

이 일은 정부가 사용자 편에서 노동자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에 정면 대응하길 피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정부와 국가, 사용자가 협력해 공세를 펼 때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져 순식간에 불리한 형국에 놓일 수 있다.

이럴 때 실용주의적으로 회피하

면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고는 더 자기제한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정의당은 옹케도 노동자들에게 투쟁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 대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환원”을 제안했다. 이는 결국 노동자들도 양보하라는 어정쩡한 결론으로 나아가기 십상이다.

회피

이런 공격을 받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연대다. 삼성전자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늘어나야 한다. 삼성전자 노동자들 스스로도 부문 간 벽을 넘어 단결할 수 있도록 요구와 투쟁을 계획해야 한다.

물가 폭등 속에 임금 인상을 간절히 바라는 노동자가 넘쳐난다. 삼성전자 노동자가 SK하이닉스 노동자의 성과급을 보며 투쟁에 나섰듯, 다른 노동자들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며 자신감과 사기가 고무되길 바라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과 조건 개선을 위해 싸울 수 있고 그렇게 하기를 지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누구나 한마디씩 거드는 ‘과도한’ 요구 프레임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사진 출처: 정영대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위험을 안고 1년 내내 근면하게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걸 누구나 안다.

따라서 주식·배당·코인·경영진 보수는 능력과 시장의 보상으로 미화되는 사회에서, 주식시장 동향을 살필히 챙기는 정부의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과도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바로 그런 질서의 편에서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정부는 노동자들보다 시장과 자산 소득가들을 더 중시한다.

이런 관찰은 근거가 없지 않다. 대

통령 측근인 김남국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수십억 원대 코인 투기 의혹을 받았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발의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를 대통령 비서실에 앉혔다. 김남국은 그 와중에도 제 버릇 못 버리고 인사 청탁 논란으로 또 물러났다. 민주당은 그런 자를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전통적인 우세 지역구에 공천했다.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다.

도대체 누가 “과도”한가?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공개 토론회 영상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 극우와 파시즘 분석과 과제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7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삼성전자노조 비(非)반도체 부문 노동자 이탈을 과장하는 보수 언론들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지난 불황 때 삭감당한 임금을 만회해야 한다는 열망이 크다

최근 친사용자 언론들에서 삼성전자 가전·스마트폰 부문(DX) 노동자들의 노조 탈퇴를 부각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DX 부문 노동자들의 탈퇴가 줄을 잇고 있고, 이 때문에 파업 대오가 심각하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이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 전에 어떻게든 그 동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시도의 일환이다.

최근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속해 있던 삼성전자노조동행(이하 동행노조)이 공투본을 이탈했다. 언론에서는 동행노조(조합원 2,300명)가 DX 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듯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에는 여전히 1만 명이 넘는 DX 부문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또, 최근 초기업노조에서도 DX 부문 조합원 2,000여 명이 탈퇴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최근 초기업노조 총투표에서 조합비를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는 방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된 듯하

다. 그렇게 하면 조합원 명단이 회사 측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조합비 자동 공제로 노조 재정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말이다.

그 때문에 자기 부서에서 소수라서 회사의 압박을 더 크게 받는 DX 부문 조합원 일부가 노조 탈퇴를 선택했다. 초기업노조의 반도체(DS) 부문 조직률은 70퍼센트가 넘지만, DX 부문 조직률은 30퍼센트에 못 미친다.

조합비 자동 공제

올해 삼성전자 노조들의 요구가 성과급 인상과 맞춰져 있다 보니 DS와 DX 부문 간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도 DX 부문 노동자들의 소외감을 높일 수 있다. 친기업 언론들은 이런 소외감을 파고들고 과장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 정당성을 훼손하고 분열시키려 한다.

그러나 세 노조를 합쳐 9만 명에 육박하던 대오에서 4000여 명이 줄어드

것을 근거로 “무너지는 대오”라고 보도하는 것은 과장이다.

DX 부문에서 탈퇴자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올해 투쟁에서 승리해 노조가 강해져야 향후 DX 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도 더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힘을 모으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요구인 ‘임금 7퍼센트 인상,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투명화’가 DX 부문 노동자들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가전·스마트폰 산업이 호황일 때에도 성과급 상한제 때문에 연봉 인상이 제약된 적이 있다.

김재원 전국삼성전자노조 정책기획국장(공동투쟁본부 언론 담당)은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에서 나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파업은 문제 없이 준비되고 있다” 하고 밝혔다.

올해 투쟁의 주축은 반도체 노동자들이고, 이 노동자들의 투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의 편차가 심하고, 이 때문에 불황기인 2023년에는 성과급이 0원으로 줄어 연봉이 크게 삭감된 바 있다.

올해와 내년 역대급 반도체 호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지난 번 임금 삭감을 만회하고 다시 찾아올 불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열망이 크다. 그래서 각종 비난에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다.

물론 부문 간 차이를 극복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조의 요구와 투쟁을 이끄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공투본은 반도체 부문 중에서 큰 수익을 내는 메모리 반도체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파운드리 등 다른 부문과의 성과급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요구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또,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내년에는 전체 사원들이 재원을 나누는 방식을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영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전진에 도움이 된다

친사용자 언론들의 온갖 비난에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 계획을 굽히지 않자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나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위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깎아내리고 노동자들을 이간질했다.

그러나 하청, 비정규직 확대의 책임은 사용자들과 역대 정부들(민주당 정부들 포함)에 있다. 비정규직 확대와 보존을 협조해 온 정치인들이 비정규직을 위한다며 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공격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다.

과거에 박용진 그 자신도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고용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연화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 인상을 쟁취하면 그제 하나의 기준점이 돼 다른 부문이나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을 고무할 수 있다.

SK하이닉스에서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이것이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에 이어 하이닉스 하

청 노동자들도 고무했다.

최근 SK하이닉스 노동자들이 성과급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역대급 실적 속 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급(임금) 인상이 하청 노동자 투쟁을 자극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2024년에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사상 첫 파업을 벌이고 집회를 열었을 때, 집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었다.

“삼성의 많은 계열사들과 그 외 협력사들은 삼성전자의 임금 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든 계열사와 협력사들에게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 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및 협력사 나

아가 국내 모든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친사용자 언론들은 이런 효과를 모르지 않는다. 최근 <조선일보>는 ‘하청 노조와 ‘농어민’ 가세, 반도체 뜯어먹기 혈안’이라는 사설에서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이 협력업체와 정치권에서의 분배 요구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친사용자 언론들과 여당 정치인들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대시하는 배경에는 이처럼 투쟁이 일반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선영

미국 현지에서 전한다 국제 노동절을 맞아 반트럼프 파업·시위가 미국을 휩쓸다

올리비아 박 재미 한국인

국제 노동절의 기원이 된 미국에서 5월 1일을 맞아 트럼프에 맞서는 전국 행동이 분출했다. 무려 5,000곳 이상에서 '위력적인 메이데이(May Day Strong)' 집회와 '셧다운'(일하지 않기, 수업하지 않기, 쇼핑하지 않기) 행동이 벌어졌다.

이번 행동은 3월 28일 '왕은 없다' 시위를 발의한 반(反)트럼프 시민단체 50501·인디비저블뿐 아니라 전미교사노조(AFT), 전미우편노조(APWU), 시카고교사노조(CTU) 등 노동조합들과 미국 민주사회당(DSA)과 그 지부들, 여러 지역의 이민자 방어 네트워크, 기후 관련 엔지오 등 수백 개 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동은 평일 낮에 치러진 만큼 이전 '왕은 없다' 시위에 견줘 규모는 작았다. 그러나 이번 행동에서는 생계비 위기에 대한 계급적 분노와, 노동조합 운동과의 접점이 두드러졌다.

반트럼프 정서가 커지며 자신감을 얻은 노동자들이 노동절을 계기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ICE에 맞선 항쟁의 진앙지였던 미니애폴리스에서는 거리 시위뿐 아니라 노동자 파업도 벌어졌다.

아이비 호텔 노동자들은 시급 3달러 인상을 요구하는 하루 파업에 나서서 대체인력 투입 금지 행동을 벌였다. 파업 노동자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한테 이 정도는 줘야 당연하죠. 우리가 호텔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24시간 동안 저들이 똑똑히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메이데이 집회

깨닫길 바랍니다."

'왕은 없다' 운동에 참가했던 뉴올리언스의 전미간호사연합 소속 간호사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메이데이부터 5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여러 대학에서도 파업이 벌어졌다.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생들은 대학 당국에 임금 인상과 시민권 없는 노동자의 보호를 요구하며 4월 20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일리노이대학교 시카고 캠퍼스의 대학원생들도 4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시카고 노동절 집회에 대거 참가했다. 로올라대학교 시카고 캠퍼스의 비정년계약 교원 300명 이상이 하루 파업을 하고 시카고 거리 집회에 합류했다.

어느 대학원생 노동조합 활동가는 이렇게 전했다. "조합원의 절반이 국제 학생들입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 국제 학생·학자들에 대한 공격은 곧 저

희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입니다."

시카고의 거리 집회를 주도한 시카고교사노조는 오후 반나절 파업을 벌이고 학생들과 함께 행진했다. 그 행진에 참가한 철강 노동자 샘은 이렇게 전했다. "제가 아는 철강 노동자 중에서 이란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 혹은 자신이 힘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진짜 힘은 우리 민중에게 있어요. 저들이 누리는 그 특권은 깨나 줘 버리러지요."

"백만장자 꺼져라!"

트럼프는 이날 행동에 참가한 사람들을 "엘리트들의 자금을 받으면서 그들을 혐오한다고 거짓말하는 여론 조작 혁명가들"이라고 비난했지만, 실제로 미국 곳곳에서 벌어진 행동들은 물가 급등에 절규하는 노동자·서민들이 계급적 분노를 나타내는 자리였다.

뉴욕 맨해튼에서는 활동가들이 뉴욕 증권거래소 입구를 봉쇄하고,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건물에 묶고 분노에 차 구호를 외쳤다. "백만장자 꺼져라!"

필자가 참가한 지역 집회에서 서비스노조 소속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유한 통치자 놈들은 세상이 자기 것인 양 굴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노동자들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

니다. 부자들이 타는 자동차, 그들이 사는 집,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쓰는 물건, 모두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필자와 같이 집회에 참가한 어느 심리학과 대학생은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 "우리는 기름값·물가 급등 때문에 빚쟁이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가 인상의 주범인 트럼프는 백악관 연회장을 금으로 딱칠하고 있습니다. 완전 프랑스 혁명 직전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미국 노동자·서민들의 이날 행동은 국제적 행동의 일부이기도 했다. 트럼프가 미국 인팍에서 펼치는 공격, 특히 이란 전쟁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비 위기를 키운 가운데 프랑스·독일·그리스·인도네시아·대만·튀르키예·필리핀·인도·남아공 등지에서 노동자들이 메이데이 집회를 성대하게 벌였다.

사실 미국에서 '위력적 메이데이'에 맞춰 행동을 벌인 노동자들은 일부 부문에 국한돼 있었고, 많은 투쟁이 한시적이었다. 그러나 이전까지 노동자 투쟁이 강력하지 않던 미국의 실정을 감안하면, 이번 행동은 반트럼프 운동에 노동운동이 결합될 희망과 잠재력을 보여 줬다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며 미국 지배계급의 내홍이 끊이지 않는 지금,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행동으로 자신감을 얻어 투쟁에 나서기를 바란다.



파업 중인 전미간호사연합 소속 간호사들

사진 출처: East Valley Unite

사진 출처: National Nurses United

쿠팡 논란

한·미 정부는 왜 갈등하는가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 의원 54명이 4월 21일 한국 정부에 쿠팡 제재와 수사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일주일 뒤 민주당 의원 상당수와 진보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96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맞불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 의원들이 쿠팡 임원 신변 보장 문제를 안보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압박한 것에 특별히 항의했고, 한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항의한 시점은 마침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기밀 유출이라며 압박해

한미 간 갈등설이 가시화된 때였다.

이 틈을 타 우익은 이재명 정부의 반미·친중·반기업 행보가 사달을 냈다고 색깔론을 폈다. 국민의힘은 4월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조금만 틈을 보여도 ‘반미좌파 정부 때문에 한미관계가 악화돼 국익이 저해된다’고 비난하는 것은 우파의 오랜 수법이다.

쿠팡 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장동혁은 진작에 “[이재명] 정권이 쿠팡 사태 초기부터 여론을 선동하고 언론을 압박해 반미 프레임짜는 데만 몰두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 관계 갈등은 이재명 정부가 반미·친중 노선을 편 탓이 아니다.

대미 투자 약속, 한·미·일 군사 훈련, 한일 외교 긴장 완화, 트럼프의 가자 점령 계획 지지, 주한미군 전력의 대이란 전쟁 이동(전략적 유연성) 인정 등이 정부가 한 일이다. 비록 이란 전쟁 파병은 하지 않았지만, 참전이 낱을 부담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모두 그랬고, 국민의힘도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진 않았다.

정부의 쿠팡 제재는 알고리즘 조작 혐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 잇따른 산업재해(와 은폐 의혹),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 유출 등 범법 행위에 대한 당연한 절차다.

한국 기업의 부패와 반노동 행위를 감싸 온 우익은 미국 기업의 범죄도 감싼다. 우익의 친제국주의는 이처럼 계급적이다.

우익이 반미 좌파 정부 운영하는 것은 정치 지형을 우경화시키고, 경제 침체의 지속이나 안보 위기의 대가를 중도 이재명 정부에 떠넘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왜 갔는지 알 수 없는 미국 방문 직후 장동혁은 “모든 경제 지표의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한미 관계 악화가 경제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이 가해진 2월 초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쿠팡, 디지털 무역 장벽, 온라인 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이] ... 핵잠, 농축·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극우 인사인 손현보에 대해 트럼프와 마가(MAGA) 인사들이 구명 운동을 펼쳤다. 서방의 극우 정치 세력들을 지원하는 그들이 친미 극우 정부의 중도 퇴진 후 등장한 중도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최근의 한미 간 갈등 요소들이 다 설명되진 않는다. 친미 보수 언론 대부분도 정부 제재에 반발하는 쿠팡을 꾸짖는다. 물론 한미관계가 손상돼서는 안 되고 차별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말이다.

정부의 쿠팡 규제가 한국 기업들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윤석열 정부도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쿠팡 한국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소했다.

쿠팡은 일본계 자본으로 시작한 형식상 미국 국적 기업이지만,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한국에서 얻는다. 그런데도 쿠팡은 경쟁하는 한국 대기업들이 적용받는 규제를 피해 왔다.

결국 4월 말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으로 회장 김범석을 지정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재벌 총수를 뜻한다. 즉, 쿠팡의 동일인으로 회

장 김범석이 지정된 것은, 쿠팡도 김범석 일가의 지배를 받는 기업이므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한국 대기업 집단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도 이 규제를 피하려고 (위험을 감수하고) 지분 구조를 분산시켜 놓았지만 결국 이해진, 김범수 등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쿠팡이 한국 정부의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으면, 한국 시장에서 지분을 더 확대하려는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 미국의 핵심 빅테크 기업들도 불편해진다.

역차별?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무역·안보 협상에서 한국의 망사용료 요구, 온라인플랫폼법 시행 움직임 등을 비판세 장벽이라며 문제 삼았던 것이다. 당시 한미 당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하기로 합의했다.

즉,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 시장을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더 친화적인 시장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한국 정부는 시장을 개방하면서도 ‘공정 경쟁’이라는 명분 하에 한국 기업들도 보호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쿠팡을 화두로 한 한미 공방의 본질이다.

가령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이중 규제라며 통신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반면 KT, SKT, LG유플러스 등 한국 통신 기업들은 인프라 사

용에 대한 대가를 내라고 불평해 왔고,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는 역차별을 호소해 왔다.

아직 입법도 되지 않은 온라인플랫폼법도 사정이 비슷하다. 승자 독식 특성이 큰 플랫폼 산업의 특성 때문에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같은 시장 지배적(과점) 기업들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심판(플랫폼)이 선수(상품 판매 기업)로 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아직 입법되지 않은 것은 네이버 같은 한국 대기업들도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쿠팡을 둘러싼 한미 정부 간 공방은 이런 거대 기업 간 경쟁에 양국 정부가 참전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쿠팡과 경쟁하는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새벽 배송 규제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는 쿠팡이 제재 때문에 주춤한 사이 무료 배송 서비스를 늘렸다.

이것이 미국 기업에 대한 반기업주의 같은 것은 전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구글과의 AI 협력을 합의하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과의 기술 협력, 투자 유치 등을 증진시키려 애쓰고 있다. 물론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다.

트럼프 정부가 이 문제를 안보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에는 다른 계산도 깔려 있다.

지난해 한미 간에 무역 투자 협의를 했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아직 구제

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불만이 클 것이다. 이란 전쟁에서 전략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유가 인상이 미국 물가 인상으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이를 달랠 방책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신경질

이란 전쟁 파병 요구에 한국 정부가 즉각 응하지 않은 것도 불만일 것이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란 전쟁을 적극 지원하지 않은 유럽연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독일에는 주독미군 감축 방침을 발표해 압박 중이다.

미국은 강대국 지위를 이용해,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에 파병하지 않는다 해서 보복을 하려 한다. 또한 자국 기업 지원을 안보 문제와 연계해 상대국을 압박한다. 미국의 패권 질서는 무너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군사적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모순이 위협과 불안정성을 더 키우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이익을 방어하며 미국과 공방을 벌인다. 한국 자본주의의 독자적 이해관계와 함께 한미 관계도 달라져 왔음을 보여 준다. 물론 한미 자본주의 공통의 이익을 찾아내 미국을 설득하려 한다. 전쟁 지원, 투자 혜택 같은 것들 말이다.

종속 대 자주의 프레임이 아니라 자본주의 찬/반 프레임이 요구된다.

김문성

6.3 지방선거

영남에서 재기 시도하는 ‘윤어게인’ 국힘

장호중

국힘 지도부가 ‘절윤’은커녕, 윤핵관·극우 인사들을 지방선거,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 전면 배치했다. 5월 4일 국힘이 단수공천한 김태규, 이진숙,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울산 남갑 후보 김태규는 최근까지도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친위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자다. 그는 대구 달성군에 공천된 이진숙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며 언론 탄압에 앞장섰었다.

‘극우 여전사’라고 자백하는 이진숙은 국힘의 대구시장 후보 출마를 단념하는 대가로 대구시장 후보가 된 추경호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공천됐다. 그는 “지방 정부까지 좌파에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색깔론을 앞세우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는 계엄의 밤 당시 국힘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집결시켜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판을 받고 있는 자다. 추경호는 대구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자 방파제”가 되어 한다면 우파층을 결집시키고 있다.

부산 북갑 후보인 박민식은 윤석열



민주당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반격을 꾀하는 국힘

탄핵과 내란 혐의의 수사에 모두 반대했다. 그가 보훈부 장관을 지낼 때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소동이 벌어졌다.

경기 하남갑 이용은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 이후 윤석열이 체포에 저항하며 관저에서 농성하던 1월, 관저 앞 극우 시위에 앞장선 자다.

국힘 지도부가 공천을 미루고 있지만,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큰 정진석은 윤석열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쿠데타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누구보다 큰 자다.

이처럼 ‘윤어게인’, 극우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상황에서 ‘절윤’을 주장해 온 국힘 후보들도 태세를 바꾸며 우파층 결집에 손을 맞잡고 있다.

비윤파처럼 굴어 왔던 유의동(평택을), 양향자(경기도지사)는 극우 김문수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확정했다. 김문수는 부산·대구·인천·울산·세종·강원·경북 등 7개 지역의 명예 선대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오세훈도 녹색 점퍼를 버리고 다시 빨간색 점퍼를 입었다.

국힘이 대열을 정비해 나가자 대

구·경북 지역 국힘 지지율은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기 시작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전재수와 국힘 박형준의 차이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국힘 밖에서 국힘의 온건함을 비판하던 극우도 기세가 오르고 있다. 전한길 출마설까지 나온다. 평택을에서 국힘 유의동이 김문수를 끌어들이며 극우 어젠다를 강화하도록 한 데에는 같은 선거구 황교안이 우파층을 10퍼센트 가량 잠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광훈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연일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엄령으로 나라를 일으켰다.” 4월 30일에는 직접 윤석열을 면회하기도 했다.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강산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시켜 오세훈의 기회주의를 오른쪽에서 공격하고 있다. 이강산은 2025년 4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불법체류자 추방” 등 인종차별과 이주민 혐오를 선동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본지가 거듭 경계했듯이 극우화한 국힘이 고립돼 스스로 무너지거나 중도층 눈치를 보며 노선을 바꿀 것이라는 일각의 바람 섞인 기대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추격 자초하며 환멸 자아내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윤어게인과 극우를 전면 재배치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들은 사회개혁 염원 대중으로 하여금 신물이 나게 한다. 극우에 맞설 대안을 보여 주기는커녕 중도보수를 차지하겠다는 우파를 고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이 대표적이다. 계엄 해제 국회 결의를 방해한 추경호가 시장 후보로, ‘극우 여전사’ 이진숙이 국회의원 후보(대구 달성)로 나선 대구에서 김부겸은 ‘보수’를 자처하며 스스로 존재감을 희석시키고 있다. 보수 인사들을 선거 캠프에 영입하고 박정희·박근혜 미화에도 열심이지만, 그럴수록 추경호와 이진숙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다. 민주당은 대구 달성 국회의원 후보를 아직 확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울산 시장 후보로 나선 김상욱은 윤석열 탄핵 표결에 동참한 뒤 민주당에 입당하는 등 ‘내란 청산’에 동조해 왔지만, 이번 선거 운동에서 “민주당 간판이 아니라 보수주의자인 자신을 봐 달라”고 강조한다.

김상욱이 의원직을 내놓은 울산 남갑에 공천된 전태진은 변호사 출신으로 다수 국가기관 자문 경력을 가진 법조계 엘리트로 평가받는다.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강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인 노동계급 도시인 울산에서 ‘진보’를 내세울 만한 후보로 평가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계엄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국힘 후보 김태규를 누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충북지사 후보 신용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 예비경선 때 그 경력을 내세워 한차례 논란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경선 후보 중 이런 인물을 낙점한 것도 메스꺼운 노릇이다.

장고 끝에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하정우도 ‘진보’와는 거리가 먼 네이버 출신 공학 엘리트일 뿐이다. 그는 네이버 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시절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 지원 등을 요구하며 업계 입장을 대변해 왔다.”(참여연대) 하정우는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이었던 적이 없다”는 씩씩한 진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부산 북갑 의원직을 내놓고 부산시장에 도전한 전재수는 최근까지도 통일교 로비 혐의의 한복판에 있던 인물이다. 공소시효 만료로 더 조사를 받지 않지만, 그의 무죄가 증명된 것도 아니다. 유죄나 불법이냐를 떠나,

통일교 같은 극우 단체와 교제한 자를 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역겹다.

하남갑 후보 이광재는 한때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렸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태광 박연차)로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 뇌물 혐의로 구속돼 있던 이재용 사면을 앞장서 주장했다. 하남갑은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2024년 총선 때도 추미애가 1.17퍼센트포인트(1,199표) 차로 가까스로 당선된 지역이다.

몇 차례나 반복된 패턴대로 민주당은 또다시 이번 선거를 최악과 차악의 대결로 만들고 있다. 차악이 “최악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까, 아니면 “차악도 악”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해 줄 강력한 좌파의 존재는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주한미군 사령관의 '킬웹' 구상

한국을 대(對)중국 전초기지로 만들자는 촉구

최근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이 일본 영자 언론 <재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미국·일본·필리핀이 '킬웹'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국 이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을 아우르는 단일 네트워크를 이루고 정보 수집, 탐지, 추적, 타격 등 군사적 역량을 조율해 중국에 공동 대응하자는 구상이다.

<재팬 타임스>는 브런슨의 킬웹 구상의 의미와 예상 효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제는 한반도를 북한 역지에만 집중하는 독립된 영역으로 취급하는 대신, 일본에서 보르네오 섬까지 이어지는 제1도련선 전반의 광범위한 방어 네트워크의 핵심 군수 허브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만 해협의 긴장부터 광범위한 해상 분쟁에 이르기까지, 역내의 주요 비상사태가 이 세 국가 모두를 끌어들이 가능성이 크다.”

이 구상의 또 다른 포인트는 한미연합군이 더는 한반도에 매인 군대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군사 정비 거점

브런슨은 지난해에는 동아시아 지도도를 뒤집어 놓고 한·일·필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구체적인 군사 공조 구상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브런슨은 “미국의 다른 어떤 동맹국도 모사할 수 없는 한국의 지리적 강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대규모 지상군이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결합돼 역지력을 제공할 수 있고, 한국의 선진적 산업 기반은 역내 군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시키지 않고 이곳(한국)에서 장비를 수리하고 회수해야 한다.”

지난달 21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지·보수·정비(MRO)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방위 산업 기반을 활용(하면) ... 작전 지역 전방에서 ‘거리의 제약’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브런슨은 한국더러 “중국 앞 항공모함”이라더니 이제는 군수 거점까지 되라고 한다

브런슨은 <재팬 타임스>에 한국의 군사 정비 거점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 왔음을 밝혔다. “우리는 이미 초기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적 수준의 방위 산업은 USNS 윌리 쉬라호와 USNS 세자르 차베스호를 비롯한 미국 해군 함정의 정비, 수리 및 대수리 작업을 수행해 왔다.”

군수 지원 거점화에 더해 킬웹 구상까지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미중 군사 대결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한편, 브런슨이 <재팬 타임스>와의 인터뷰와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중국 견제 동참을 역설한 시점이 의미심장하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 주독미군을 감축하고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복도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군기 잡기에 나서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시 발언’ 이후 대북 정보 공유 중단, 한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전쟁에 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 미셸 박스틸의 주한 미 대사 내정 등.

브런슨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견제구를 던졌다.

요컨대 미국은 자신의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브런슨의 최근 발언들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이런 상황에서 반미자주파의 급진적 경향은 옹계도 주한미군 철수와 브런슨 추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강조하고, SNS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자주적’ 행보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덕분인 듯하다.

사실 미국 패권의 약화를 보며 한국 국가 관료들과 기업주들의 적어도 일부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만 의존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할 것이다. 한국 국력의 성장에 걸맞은 관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이전보다 강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이 군사력 5위인데 왜 외국 군대 없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을 갖느냐”면서 전작권 환수와 “자주 국방”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을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미동맹도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여전히 최강국인 미국과의 협력이 국익이라고 본다면, 전작권 환수와 “자주 국방” 강조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미국의 대중국 포위 협력 등과 얼마나 공존할 수 있다.

“자주 국방”을 적극 추진한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둘 다에 합의했다.

자주 국방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도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주한미군의 전력 반출에 대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전략적 유연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한국군은 한미연합훈련(중국 견제 성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을 중단 없이 실시하고 있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대중국 전쟁 연습에도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올해 2~3월 태국에서 실시된 ‘코브라 골드’, 지난해 8~9월 괌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퍼시픽 뱅가드’, 지난해 7~8월 호주에서 실시된 ‘탈리스만 세이버’에 한국군이 참가했다.

이번 6~7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연합 훈련 ‘림팩’에도 한국군이 참가한다. 이번 림팩 훈련에서는 한국 측이 연합 해군의 지휘권을 맡는다.

브런슨은 <재팬 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연합군이 “제3자의 개입과 더 광범위한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도록 훈련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림팩 등 연합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역지력을 넘어 더 넓은 인도태평양 안보에 기여하는 동맹의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즉,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전략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전력 이동 협조와 대중국 전쟁 연습 참가 같은 일들이 (우파가 아닌 중도 정부 하에서도) 대중에 알리지 않은 채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다.

어쩌면 브런슨이 주장하는 킬웹과 한국의 군수 거점화는 이미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일지도 모른다.



서평 | 《완벽한 피해자 -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존재》 (모함메드 엘쿠르드 지음, 마티)

팔레스타인 저항을 악마화하는 시선에 맞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무장 저항 직후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구 매스미디어에서 “하마스를 규탄합니까?”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다.

이에 답하듯 런던의 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자는 “우리의 시체하고만 연대하고 우리의 로켓포는 거부하는 자들은 위선자다”라는 팻말을 들었다.

이 책은 이처럼 팔레스타인인을 “피해자 아니면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이분법에 도전한다.

저자는 점령된 예루살렘(동예루살렘) 출신의 급진적 팔레스타인 청년 활동가이자 시인, 언론인이다.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쌍둥이인 무나 엘쿠르드와 함께, 정착자들에게 공격받는 세이크 자라 마을의 현실을 알리며 활동해 왔다(12살 엘쿠르드 쌍둥이를 취재한 <가디언> 보도). 또한 2021년 ‘단결 인티파다’의 핵심 활동가로서 활약했고, 같은 시기 팔레스타인 당국(PA)에 비판적이었던 활동가 니자르 바나트를 PA가 살해한 것에 항의하는 운동에도 동참했다.

평생 식민지배 하에서 목소리를 빼앗긴 민족으로 살아온 저자의 설움이 책 전체에서 느껴진다. 두 살 반 때 ‘순교자’라는 단어를 배운다. 열 살 남짓한 나이에 집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정착자들의 강탈을 폭로하기 위해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려 애쓴다. 열일곱 살 때는 버스 창밖으로 경찰의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도래를 본다. 이것은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어린 시절이기도 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점령과 학살에 관해 말하고 저항하고자 하지만 매스



“우리의 로켓포가 아닌 시체하고만 연대하는 자는 위선자다!” 팔레스타인인의 외침

미디어는 이를 결코 경청하지 않는다. 매스미디어에서 팔레스타인인은 ‘완벽한 피해자’이거나 테러리스트이거나 둘 중 하나다. 그리고 ‘완벽한 피해자’일 때에만, 그리고 그 무결성을 끊임없이 입증할 때에만 팔레스타인인은 인간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저자는 지적한다.

‘송곳니 뽑기’

저자는 이처럼 시온주의와 인종차별, 이를 공유하는 서구 매스미디어를 맹렬히 비판한다. 비록 선한 의도를 갖고 있을지라도 결국 ‘비인간화’된 팔레스타인인의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활동가들’도 비판의 대상이다.

저자가 비판하는 팔레스타인인 ‘비인간’ 취급의 핵심은 “송곳니 뽑기”, 즉 분노하고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우고 수동적 객체로서의 팔레스타인인들만 남겨 두는 것이다. 매스미디어는 어떠한 정치 경향도 없고 저항에 가담하지도 않은 ‘무관한’ 팔레스타인인, 특별히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살해당한 팔레스타인인 등 입맛에 맞는 팔레스타인인만을 조명한다. 팔

레스타인인들에게 마이크를 쥐어 주더라도 그들의 생각이나 분석이 아니라 피해 경험만을 듣고자 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은 억압받는 사람들로써 분노하고 저항한다.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됐던 아동이 나중에 커서 무장 저항에 가담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지배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해해야 마땅한 일들도 우리가 하면 과도하고 불가해하며 원시적인 행동이 된다.”(26쪽)

친서방 국가인 한국에서도 주류 언론들은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로 묘사하고, 하마스와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을 애써 분리하고 후자를 피해자로 조명해 하마스는 단죄받아 마땅한 세력이라는 메시지를 암묵적, 때로는 명시적으로 퍼뜨렸다.

<조선일보>는 말할 것도 없고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자유주의 언론들도 “송곳니 뽑기”에 동참했다.(관련 기사: 본지 499호, ‘한국 언론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보도: 미국 책임 흐리고 팔레스타인 저항 보도하지 않기’)

국내 진보·좌파 일각에서도 처음에 하마스의 공격을 지지해야 할지 망설



모함메드 엘쿠르드 지음 박종주 옮김, 마티, 272쪽, 19,000원

였다. 특히 하마스 등의 이스라엘 ‘민간인’ 납치와 인질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다.

반면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급진적 부분은 10월 7일 공격과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 저항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에서도 2023년 10월 7일 공격 직후부터 팔레스타인 저항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거리로 나선 사람들이 있다. 이 시위의 주체들은 이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을 형성해,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 연대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저자는 수십 개월 지속돼 온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바뀌어 낸 것이 있다고 말한다. “시온주의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력한 힘을 자처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지금 유례없이 취약해져 있다.”(223쪽)

국제적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결코 굴종하지 않는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영감과 에너지를 얻어 왔다. 팔레스타인 청년이 쓴 이 책을 읽으면 자신을 비인간화하는 세상에 끊임없이 맞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투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양성경

▶ 12면에서 이어짐

라자 씨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라자 씨는 행사 후에도 늦게까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팔레스타인 이야기에 큰 관심과 지지를 표하는 것에 라자 씨도 기뻐했다.

어라이즈 아트 스페이스에서 준비한 모아예드 씨의 사진 작품 엽서들은 모두 동났다. 주최 측은 판매 수익 전

액이 모아예드 씨의 작품 활동을 후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팔연사의 홍보 부스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후원이 이어졌고, 여러 참가자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 소식을 알려 달라며 연락처를 남겼다.

다음 날로 예정된 부산 팔연사 집회에 관심과 참가 의사를 보인 사람도 많았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레바논인 기와 씨는 다음 날 팔연사 집회에서

절절하게 연설해 집회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정성휘

- 어라이즈 아트 스페이스와 부산 팔연사는 5월 1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팔레스타인 다큐멘터리 상영회와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 모아예드 씨 작품의 전시회는 5월 17일 까지 열린다.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아랍에미리트의 오펜 탈퇴 미국 패권 약화가 지역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다
- ★ 임승수의 《누가 세계의 규칙을 바꾸는가?》 서평
- ★ 긴글 이탈리아의 팔레스타인 연대 총파업 심층 분석



사진전과 함께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가 말한다

5월 2일 토요일 부산 수영구의 독립 예술 공간 어라이즈 아트 스페이스에서 '나크바 78년,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와의 대화: 나크바에서 이란전쟁까지'가 열렸다.

어라이즈 아트 스페이스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부산)'(이하 부산 팔연사)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거주 사진작가 모아예드 아부 암무나의 전시회를 기념하는 오프닝 행사이기도 했다. 해당 전시회는 어라이즈 아트 스페이스가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행사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행사가 본격 시작되기 전부터 참가자들이 모여 반갑게 대화를 나누면서 행사장이 북적거렸다. 시작 후에는 행사장이 가득 차서 서 있을 자리도 모자랄 정도였다. 엄마와 손 잡고 온 아이, 대학생, 화물연대 노동자, 다양한 이주배경 참가자 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SNS를 통해 이 행사를 알게 돼 참가한 레바논인 기와 씨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당한 친구를 기리는 표식을 가방에 달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합원 여러 명도 행사에 참가했고, 한 조합원의 홍보로 행사에 참가한 학생이 교수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발표 중인 부산 거주 팔레스타인인 라자 씨. 모임은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어라이즈 아트 스페이스 운영자 나일 씨의 인사로 시작됐다. 북아일랜드 출신인 나일 씨는 어릴 때부터 아일랜드 깃발과 팔레스타인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는 풍경을 보고 자랐으며, 왜 북아일랜드 출신인 자신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하게 됐는지 설명했다. 나일 씨는 부산에서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소개하며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사진작가 모아예드 씨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시된 작품의 의미를 설명하는 영상을 보내 줬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인함도 작품 속에 표현하고 싶다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 라자 야신 씨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는 팔레스타인명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역사, 외할머니께서 이스라엘의 점령보다 더 긴 생을 버티며 돌아갈 고향 집의 열쇠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가족사를 생생하게 전했다. 몇몇 참가자들은 발표를 들으며 눈물짓기도 했다.

변화

라자 씨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현재 벌어지는 이란 전쟁의 관련성도 말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영토를 확장하려 하며,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즉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라자 씨는 지난 2년 반 동안 일어난 변화를 말했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시위할 것이라고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10월 7일 이후 많은 사람이 팔레스타인인들 삶의 실상을 배우게 됐으며, 지금까지도 시위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 부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계속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변화를 만듭니다."

▶ 11면으로 이어짐

포럼

전쟁, 혼돈의 세계, 저항

5월 16일(토) 오후 12:30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주최 노동자연대

<p>12:30 - 14:45</p> <p>가자에서 이란까지: 미국-이스라엘의 전쟁과 저항</p> <p>소니아 재한 이란인 마르얌 재한 팔레스타인인 김지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p>	<p>15:00 - 16:30</p> <p>동아시아는 다음 전장이 될 것인가? 미-중 패권 경쟁, 동아시아, 한반도</p> <p>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p>	<p>17:00 - 19:00</p> <p>트럼프, 제국주의의 위기, 좌파의 과제 온라인 발매</p> <p>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리더</p>
-------------------------------------------------------------------------------------------------------------------------	----------------------------------------------------------------------------------------------------------	--------------------------------------------------------------------------------------------------------------------------------------------------------------------------------------------------

더 많은 정보 & 참가 신청
ws.or.kr/forum0516

참가비 (하루) **20,000원**
대학생, 이주민·난민 **14,000원**

• 전문 통역사의 영어·아랍어 통역 제공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들

- ▶ 참가자들이 의견 나누고 소통하는 청중토론 시간
- ▶ 팔레스타인인과 이란인에게 직접 듣는 생생한 이야기
- ▶ 세계 석학이자 혁명적 좌파인 캘리니코스의 통찰과 전망
- ▶ 포럼 주제 관련 도서를 할인된 가격에 만날 기회

문의 010-4909-2026 (문자 가능)
wsorg@ws.or.kr